2024
APRIL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VOL.
264

Ch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Open Doors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 잠언 31장 25절 –

부활절을 기념하며
- 부활절 인사

2024년도 젠더 리포트
- 성별 종교적 박해
- 중요한 발견

박해 받은 여성 캠페인
- 케냐 제인의 이야기
- 중앙아시아 아나라의 이야기
- 동역자님께 드리는 편지

박해와 선교현장 - 예멘

북한선교현장
- 이끄심: 시작은 어머니로부터(3)

Heart To Heart
- 한국오픈도어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 기도 자료
  • 기독교 박해지도 및 50일 기도책자
  • 어린이 기독교 박해지도 및 기도여권
- 한국오픈도어 지역설명회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 2024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Open Doors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4년 4월호 | 통권 264호 |
등록번호-중랑,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김택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황자경, 박인영 민태홍, 김하영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이정현, 김안나, 한아론, 장요셉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샛별

오픈도어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후원하기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을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차

03 부활절을 기념하며 - 부활절 인사

04 2024년도 젠더 리포트
- 성별 종교적 박해
- 중요한 발견

08 박해 받은 여성 캠페인
- 케냐 제인의 이야기
- 중앙아시아 아나라의 이야기
- 동역자님께 드리는 편지

12 박해와 선교현장 - 예멘

18 북한선교현장 - 이끄심: 시작은 어머니로부터(3)

20 Heart To Heart
- 한국오픈도어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 기도 자료
  - 기독교 박해지도 및 50일 기도책자
  - 어린이 기독교 박해지도 및 기도여권
- 한국오픈도어 지역설명회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 2024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

-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부활절을 기념하며

부활절 인사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 43장 4절

여러분이 심인과 같은 여성들 곁에
함께해 주신다면,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것입니다.

받해 받은 여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소중한 자매 심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녀의 삶의 간증을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용기와 믿음 또한 감사드립니다.

심인과 다른 박해 받은 여성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그들이 주님의 사랑과 삶의 목적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과 대체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기쁜 부활절 되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여러분 모두 주님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저와 오픈도어 가족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2024년도 젠더 리포트

‘다시는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 기독교인들이 직면하는 폭력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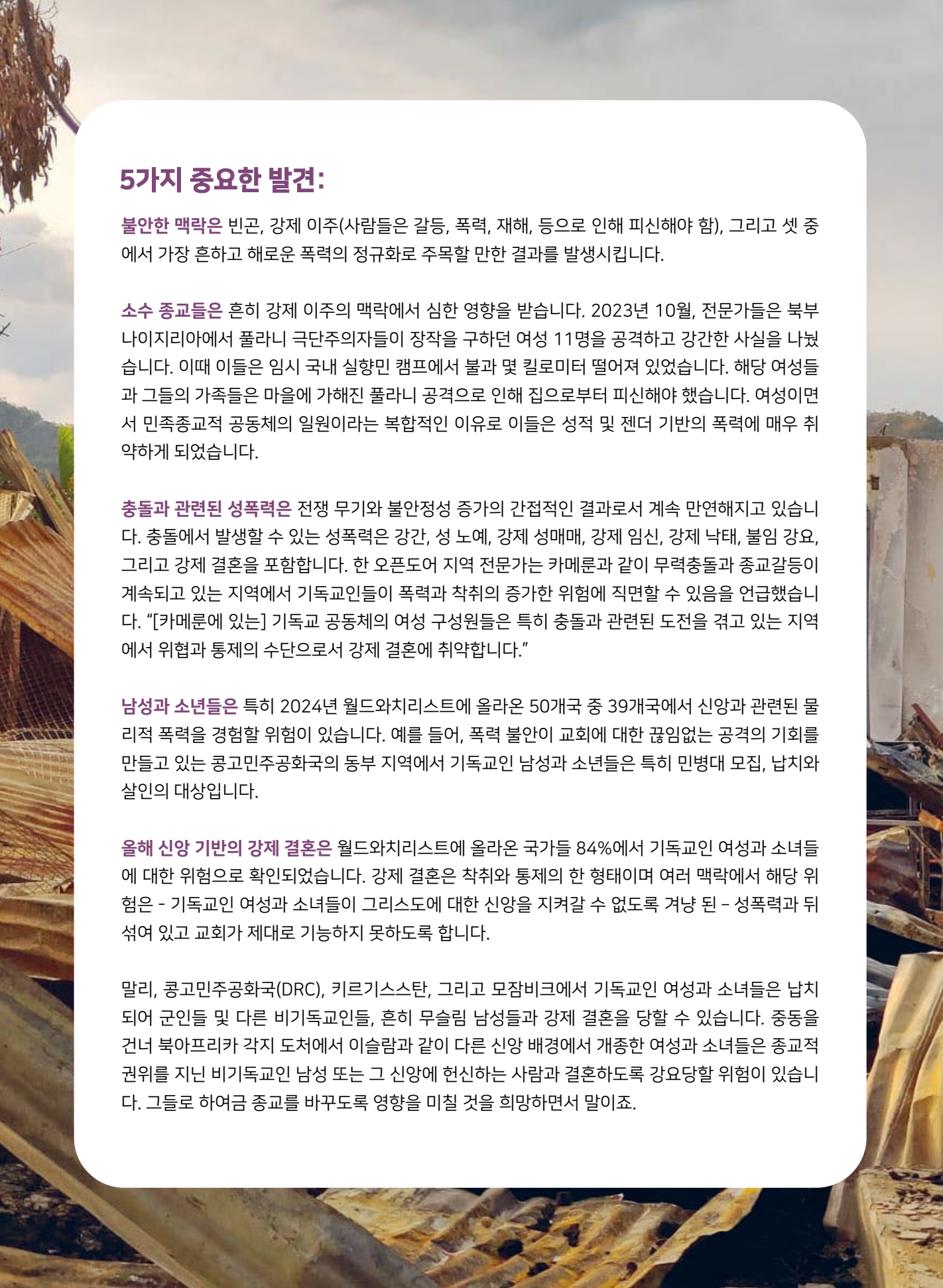
새로운 보고는 폭력 불안을 성별 종교적 박해의 주요한 요인으로 여깁니다.

한 그래픽 비디오가 5월 4일의 악몽을 포착했습니다. 이날은 인도 마니푸르주에서 쿠키족과 메이테이족 사이에 주로 민족적인 폭력이 일어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해당 비디오는 (대부분 기독교인 쿠키족의 글로리와 머시 라는) 기독교인 여성 두 명의 모습을 비췄는데, 이들은 강제로 나체 상태에서 메이테이족의 큰 무리 사이로 걸어가야 했고 직후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포브스 잡지에 다음과 같이 나눴습니다 "저는 동물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글로리와 머시 둘 다 집에서 도망해 숨어야 했습니다.

전세계에서 글로리와 머시 같은 기독교인 여성들이 견딘 끔찍하고 모욕적인 상황은 흔히 불안한 환경에 의해 특정 지어집니다.

성별 종교적 박해에 대한 오픈도어의 새로운 연구는 (종교적으로 겨냥 된 폭력, 무력 분쟁, 그리고 범죄 폭력을 포함한) 폭력 불안의 맥락이 기존의 취약성을 악화시키고 특정한 형태의 성별 종교적 박해를 악화시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결정하면 취약성을 한 층 더했습니다.

새로운 보고는 박해가 이미 만연한 곳에서 심한 폭력의 상황들은 기독교인들을 더욱 겨냥할 수 있도록 함을 언급합니다. 완전하게 안심하거나 안전한 장소는 없으며 보고는 2024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에 -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50개국 순위 - 올라간 21개국이 폭력 불안의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5가지 중요한 발견:

불안한 맥락은 빈곤, 강제 이주(사람들은 갈등, 폭력, 재해, 등으로 인해 피신해야 함), 그리고 셋 중에서 가장 흔하고 해로운 폭력의 정규화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소수 종교들은 흔히 강제 이주의 맥락에서 심한 영향을 받습니다. 2023년 10월, 전문가들은 북부 나이지리아에서 풀라니 극단주의자들이 장작을 구하던 여성 11명을 공격하고 강간한 사실을 나눴습니다. 이때 이들은 임시 국내 실향민 캠프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해당 여성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마을에 가해진 풀라니 공격으로 인해 집으로부터 피신해야 했습니다. 여성이면서 민족종교적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복합적인 이유로 이들은 성적 및 젠더 기반의 폭력에 매우 취약하게 되었습니다.

충돌과 관련된 성폭력은 전쟁 무기와 불안정성 증가의 간접적인 결과로서 계속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충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은 강간, 성 노예, 강제 성매매, 강제 임신, 강제 낙태, 불임 강요, 그리고 강제 결혼을 포함합니다. 한 오픈도어 지역 전문가는 카메룬과 같이 무력충돌과 종교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폭력과 착취의 증가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카메룬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여성 구성원들은 특히 충돌과 관련된 도전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위협과 통제의 수단으로서 강제 결혼에 취약합니다."

남성과 소년들은 특히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에 올라온 50개국 중 39개국에서 신앙과 관련된 물리적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 불안이 교회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의 기회를 만들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동부 지역에서 기독교인 남성과 소년들은 특히 민병대 모집, 납치와 살인의 대상입니다.

올해 신앙 기반의 강제 결혼은 월드와치리스트에 올라온 국가들 84%에서 기독교인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위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제 결혼은 착취와 통제의 한 형태이며 여러 맥락에서 해당 위험은 - 기독교인 여성과 소녀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켜갈 수 없도록 겨냥 된 – 성폭력과 뒤섞여 있고 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말리, 콩고민주공화국(DRC),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모잠비크에서 기독교인 여성과 소녀들은 납치되어 군인들 및 다른 비기독교인들, 흔히 무슬림 남성들과 강제 결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중동을 건너 북아프리카 각지 도처에서 이슬람과 같이 다른 신앙 배경에서 개종한 여성과 소녀들은 종교적 권위를 지닌 비기독교인 남성 또는 그 신앙에 헌신하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강요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종교를 바꾸도록 영향을 미칠 것을 희망하면서 말이죠.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에서 당시 청소년이었던 이자나다를(가운데) 납치해 그들의 전사들 중 한 명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녀는 16살에 루카를(왼쪽) 출산했고, 2018년에 또 한 번 임신을 했고 탈출했습니다. 4년 가까이 포로로 살았던 이자나다는 해방되었지만, 그녀가 속한 공동체의 판결은 그녀와 자녀들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오픈도어는 샬롬 트라우마 센터에서 이자나다에게 트라우마 돌봄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성별 종교적 박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위험한 결정을 한 여성 및 남성들에게 있어 계속 도전이 되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교회는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이 물리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필요를 채워주며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도어의 나이지리아 샬롬 트라우마 센터는 트라우마 피해자들에게 장기적인 지원과 트라우마 돌봄을 주고자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은 신뢰를 얻고 있으며 영향을 입은 공동체에 보통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소수 종교들의 심리적 욕구와 영적인 욕구를 포함한 필요들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습니다. 이들은 성인지적 접근법을 향해 점점 더 노력하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보코하람 전사들과 함께 4년 가까이 포로로 살았던 이자나다와 같은 신자들이 샬롬 센터로 왔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저는 이 곳에서 새로운 삶을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를 격려해 주셨고, 진정한 용서와 내려놓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감동을 받았고, 또 용서를 받았습니다."

남성과 소년들은 특히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에 올라온 50개국 중 39개국에서 신앙과 관련된 물리적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있습니다.

-2024년 오픈도어
"불안: 2024년도 젠더 리포트"

기독교인 여성과 소녀들은 월드와치리스트에 올라온 국가들 84%에서 강제 결혼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2024년 오픈도어
"불안: 2024년도 젠더 리포트"

박해 받은 여성 캠페인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선택할 때 더더욱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픈도어는 이와 같이 가장 취약하고 배제된 박해 받는 여성 기독교인들을 위해 전세계 교회 네트워크를 통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박해 받는 여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에 닿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 43장 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케냐 제인의 이야기

2015년, 알샤바브 무장세력들이 케냐 북동부에 있는 가리사 대학을 공격했을 때 제인*은 이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4월 2일 공격이 발생한 날, 그녀는 늦잠을 잤고 아침 기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묵상 시간을 위해 모인 학생들과 캠퍼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날, 제인은 친한 친구들과 반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제인처럼 살아남은 학생들은 트라우마를 입은 채로 남겨졌습니다. 2015년 사건이 발생한 이래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소수의 생존자들과 함께 했고, 그들이 가리사 사건 이후의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동행했습니다.

"저는 2015년 테러 공격에서 살아남고 트라우마를 겪었는데, 오픈도어를 만나고 나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작년, 오픈도어는 동행 사역의 일환으로 제인을 방문했습니다. 공격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이 여전히 그녀의 기억에 각인되어 있지만, 공격 이후의 삶도 너무나 도전적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나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가 그 때의 기억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학을 했을 때 그 아픔은 더 복합적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관의 학생들은 가리사 대학 생존자들을 예외로 취급했습니다." 제인과 같은 생존자들을 구별하는 것은 많은 생존자들을 고립시키고 그들의 트라우마를 더 심하게 했습니다.

2019년 9월, 제인과 다른 생존자들은 트라우마 돌봄 지원을 받기 위해 초대되었습니다. 그녀는 박해 대비 훈련(SSTS)에도 참석했고 동행 사역에 지속적으로 함

께 했습니다. 2021년, 제인은 오픈도어로부터 소액 대출의 형태로 재정적 지원을 받아 양계장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자신과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난 지 하루 된 닭을 키워서 이 닭들, 특히 수탉이 다 크면 팝니다. 이에 더해… 닭들이 알을 낳으면 그것을 팔아 수입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천연 비료를 얻을 수 있어서 채소와 옥수수를 조금 심어 놓은 작은 농장에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제인은 31살이 되었고, 여러모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비록 가리사 공격은 영원히 아픈 기억으로 남겠지만, 그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늘 가지고 있던 압박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강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 제가 치유된 모습을 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정말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제인은 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정교사직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 가리사 사건 이후에 제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트라우마 돌봄과 동행 사역을 통해 영적, 정서적 치유를 얻게 해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인과 그녀의 가정을 공급해주시고 불확실한 시간들 속에서도 과거에 그녀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제인의 작은 사업이 계속 성장해서 그녀가 가정을 지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제인이 학교에서 정교사가 되어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중앙아시아 아나라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목숨과 자유와 편안함을 걸고 살아가는 중앙아시아 여성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선택한 많은 여성들은 일상 생활에서 물리적, 정서적, 심리적 대가, 재정적 영향, 그리고 가정 및 지역사회에 의한 단절을 겪습니다. 이 같은 위협은 여성들이 신앙을 버리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연구 분석가 Rolf Zeeger: "월드와치리스트 정보에 따르면, 기독교로 개종한 중앙아시아의 여성들은 계속해서 납치, 가족에 의한 감금 (가택 연금), 사회 공동체/연결망 접근 제한, 강제 결혼 및 이혼, 자녀 양육권 제한, 그리고 신체적 및 언어적 폭력에 시달립니다." 오픈도어는 중앙아시아의 파트너들과 함께 사역하며 여성들에게 훈련, 트라우마 상담, 직업 교육, 그리고 다른 실제적 원조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많은 이들의 생명줄입니다.

아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비밀 신자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신자들을 만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남편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그녀의 성경책을 발견하고 격분했습니다.

"그날, 몇 시간 동안 남편은 저를 폭행했습니다. 저를 구타했고 얼굴과 손, 다리를 발로 차고 저를 향해 혐오스러운 이름들을 소리치며 본인과 참신을 배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와 아이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니 믿어야 할 신에 대한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라는 상처와 멍 투성으로 위태로운 상태였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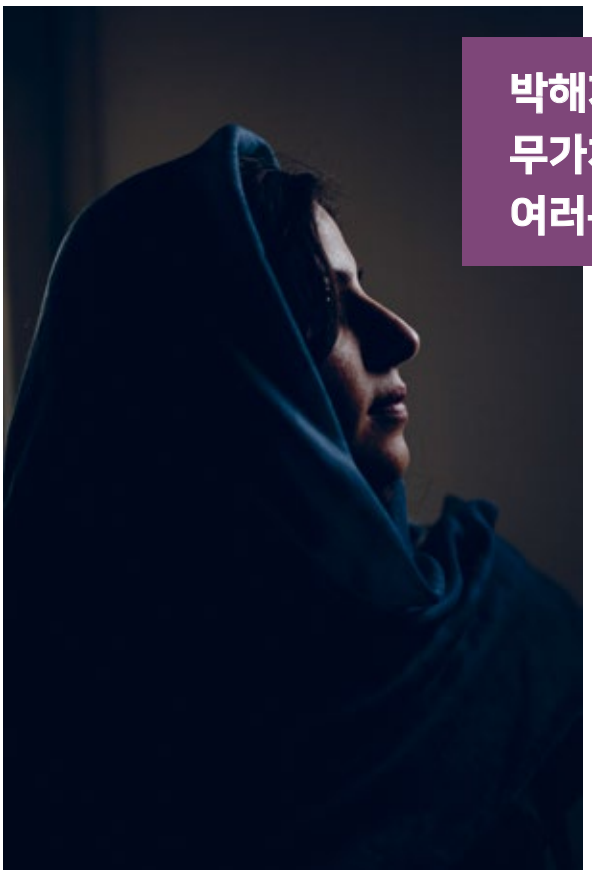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쇠약 해졌고 두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께로 갔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저를 받아 주었습니다. 저는 폭력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제 책임으로 돌리고 저와 제 신앙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다고 하십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경찰과 당국조차 가정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친척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아나라와 같은 여성들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신자들에게 도움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은 아나라가 자녀들과 지낼 집을 임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주 편안한 곳은 아니지만, 최소한 구타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안 상의 이유로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기도제목

- 신앙을 이유로 박해 받는 기독교인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을 돕고, 지지하고, 격려해줄 신자들을 곁에 허락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트라우마 상담 지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역이 참석하는 여성들에게 치유를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다가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 오픈도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성들을 준비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박해가 심인과 같은 여성을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할 때 여러분의 지원은 더욱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에게,

여러분은 절대 중동의 기독교인 여성들이 느끼는 것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지 않기를, 신앙을 이유로 무가치하다고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란 출신의 심인은 이런 가슴 아픈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녀를 비롯한 다른 용감한 여성들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가치한 여성은 없습니다.

심인은 성별이 그녀를 차선으로 만드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순간부터 가치도, 힘도 없었습니다. 젊은 간호사였던 그녀가 처음으로 성경을 열어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숨이 멎을 정도였습니다. "여성은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예요. 저희는 무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이미 취약한 곳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심인의 아버지는 그녀가 제 정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은 습격을 당했고, 그녀는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몇 시간 동안 위협을 받고 심문을 받았습니다.

심인은 18년 동안 병원에서 근무했지만 해고당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는 이란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해가 어떻게 심인의 가치를 공격하는지 보셨나요? 그녀의 집, 직업, 그리고 그녀가 알던 삶,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심인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심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중동에 걸쳐 그리스도의 자매들은 폭력적이고 잔인한 박해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박해 받는 여성들을 위한 여러분의 선물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실하게 필요한 지도자 및 제자 훈련, 트라우마 돌봄, 그리고 목회 지원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성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심인은 이란을 떠났을 때 오픈도어 제자 훈련에 참여했고, 이는 박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많이 강화되어 이제는 다른 박해 받는 이란 여성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저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심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누리는 것을 보니 놀랍습니다. 심인과 같은 많은 박해 받는 여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안 상의 이유로 사용된 이름과 사진은 실제가 아닙니다.*

부활절 기념 선물 나누기

- **40,000원**
  네 명의 여성에게 신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성경적 문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50,000원**
  한 명의 기독교인 여성에게 가족의 생존을 도울 수 있는 한 달치 식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80,000원**
  한 명의 박해 받는 여성이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재정의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 후원하기 - 여성사역

계좌입금:
여성사역 캠페인 - 신한은행 - 100-027-219169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박해 받는 여성들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자매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월드와치리스트 2024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월드와치리스트 2024 보고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예멘 (YEMEN)

기독교 박해지수 5위

폭력과 압박의 정도

폭력점수	폭력영역	5.9	
압박점수	개인영역	16.7	
	가정영역	16.7	
	공동체영역	16.6	
	국가영역	16.7	
	교회영역	16.7	

여섯 개 영역은 각각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총합은 100점이다 (6 × 16.7 = 100).

중요한 발견

예멘에 있는 교회는 주로 비밀리에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 무슬림 배경의 개종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구금과 심문을 포함해) 정부당국, 가족, 그리고 배교자들을 죽음으로 위협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를 당한다. 예멘의 부족 정체성은 이슬람 정체성과 아주 많이 얽혀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을 떠난다는 이유로 부족으로부터 극심한 지역사회 압박과 폭력에 직면한다. 무슬림과 결혼한 기독교 개종자들은 강제 이혼과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상실을 각오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전반적인 인도주위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으나 긴급 구호는 모스크를 통해 현지 무슬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부되고, 이는 독실한 무슬림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예멘인 기독교인들은 더 취약하다.

예멘
(YEMEN)

국가 정보

지도자 : 라샤드 모하메드 알-알리미 대통령 지도 위원회 의장
인구 : 31,818,000 명
기독교인 수 : 소수 (오픈도어 추정)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전환 중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비율
기독교인	소수	-

출처 [1]

2014년, 후티 (시아파 무슬림 소수 집단)는 하디 대통령 정권의 경찰들에 좌절되어 군대와 동조해 수도 사나를 장악했다. 하디는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했고 그 후 그를 복위 시키고, 국경을 보호하고, 예멘이 분열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대다 수가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역 경쟁 상대인 시아파 이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을 구성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군력으로 후티 쿠데타를 빠르게 패배시킬 것을 예상했지만 내전은 계속되었고 100,000명의 사망자와 250,000명의 실향민을 초래했다.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인구의 80% 가까이 가난 속에 살고 있다. 전쟁 지역 안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슬람 국가 (IS) 및 알카에다 같은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들은 그들이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에 처벌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집단들은 특히 취약하다.

1994년 헌법에 따르면 예멘은 권위주의적인 이슬람 공화국이며 샤리아 (이슬람 법)는 법의 주요 근원이다. Middle East Concern에 의하면: "신성 모독, 종교에 대한 명예훼손, 비이슬람교의 전도는 금지되어 있다. 배교는 형사 범죄이며, 종교를 바꾸는 것을 거부하는 배교자들은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무슬림과 배교자 사이, 그리고 무슬림 여성과 비무슬림 남성 사이의 결혼에 대한 금지를 포함한 이슬람 가족법이 적용된다. 비이슬람교 종교 단체들을 위한 공식적인 등록 절차는 없고, 정부는 여러 해 동안 비이슬람교의 예배당 건설을 인가하지 않았다."

보안을 위해 종교에 대한 WCD 세부 분석은 발표할 수 없다. 오픈도어는 기독교인 수가 '몇 천명'일 것으로 추정했다. 2015년에 지금의 내전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보통 개발 분야에서 일하는 수 천명의 이주자들이 아덴과 사나에 있는 등록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이들 기독교인 대부분은 위험한 상황 때문에 강제로 나라를 떠나야 했고, 일부 교회들은 뒤집어 엎어졌다. 현재 나라 안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토착민 개종자들이다. 이들은 가족들, 씨족들, 그리고 부족들에 의해 살해 당할 큰 위험에 처했다. 그리고 예멘에는 상당 수의 에티오피아 및 에리트레아 기독교인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예멘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위험하다. 남부와 같이 알카에다의 존재감이 강한 일부 지역들은 특히

[1] *오픈도어 추정에 따름*

위협적이다. 또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수니파 하디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보다 (예멘 영토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아파 후티가 통제하는 북부지역에서 더 많은 압박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전통적인 기독교 배경을 가진 이주 기독교인들과 연결된 정보원에 따르면, 그들은 다른 어떤 곳보다 후티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제약을 덜 경험한다는 것이다. 후티가 통제하는 지역은 심한 감시를 받고 모든 반대 의견은 철저하게 억압당하고 투옥 및 고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누가 영향을 받았는가?

국외 거주자 기독교 공동체들

거의 모든 서방의 국외 거주자들은 전쟁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나라를 떠났다. 인종 차별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뒤섞인 가운데서 남아 있는 국외 거주자 기독교인들은 사회로부터 위협과 극단적인 이슬람 운동으로부터 폭력에 직면한다. 그러나 그들의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이제 교회는 주로 현지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외 거주자 기독교인 범주는 현재 기독교 박해지수 점수 기록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이 범주는 월드와치리스트 점수 기록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독교 개종자들

예멘의 교회 중 최소 95%가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인 가족/지역사회/부족적 태도,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불처벌, 그리고 국가 (또는 실질적인 국가) 당국이 모든 형태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 개종자들의 취약성은 국내 도처에서 여전히 매우 높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들

이 범주는 월드와치리스트 점수 기록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해 및 차별의 주요 근원

이슬람의 탄압

예멘의 헌법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그리고 샤리아는 모든 법률제정의 근원으로 선언한다. 개종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고, 무슬림들은 개종할 수 없다. 예멘의 종족 정체성에서 이슬람이 핵심적인 부분인 반면, 후티,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 (AQAP), 그리고 IS와 같은 무장단체들은 금욕주의적인 형태의 이슬람을 시행하고자 한다. 그들은 이슬람 탄압의 주요 원인이고 기독교인들을 활발히 표적 삼고 살해했다.

씨족의 탄압

예멘 사회는 주로 부족적이고, 통치 면에서는 중앙 정부 당국이 보통 부차적인 역할을 한다. 이슬람 정체성은 민족 정체성과 뒤얽혀 있다. 많은 지역에서 부족 연장자들은 부족 법 및 관습을 실시하고, 이는 구성원들이 부족을 밖을 떠나거나 부족 밖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한다. 불복종에 대한 처벌로 죽음 또는 추방을 당할 수 있다.

독재정치

예멘은 2012년 이래 독재 하에 있었다. 갈등의 맥락에서 서로 적대하는 당파의 생존 본능은 강하다. 후티가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통치 당국에 의해 위협으로 간주되는 개인 또는 단체들에 대해 후티 행정부의 점점 더 가혹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었다. 이것은 계속되었고 소수 종교 공동체들의 구성원들을 포함한다.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그리고 서방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특히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법에 의한 지배가 결여되어 이들에 대해 범죄를 자행하는 사람들은 더 처벌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취약한 가운데 있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예멘의 가부장적, 이슬람적 맥락에서 여성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가족에 수치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무슬림 배경의 여성 개종자들은 전화가 거부되고 집에서 고립될 것이다. 이들은 추가적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강간을 당하거나, 심지어 부족 또는 가족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엄격한 무슬림과 강제 결혼하는 것은 젊은 개종자를 동조 시키기 위한 잠재적인 해법이다. 엄격한 가족 감시로 인해 여성은 기독교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적이고, 이는 기독교인이 되는 여성이 더 적어지는 것을 야기했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기독교 종교 자료, 가르침 그리고 의식에 대한 접근 제한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 (가택 연금)
- 폭력 – 살인 /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남성

계속되는 내전과 종교의 자유가 없는 가운데서 예멘에서의 삶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기독교인 남성들과 소년들은 민병대에 가담하도록 강요당할 수 있다. 전쟁에 끌려가면 이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앗아가는 시간 때문 만이 아니라, 훈련이 실시되는 고도로 통제된 이슬람 환경 때문에도 그들의 교육과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기독교로 개종한 남성들은 공공 영역에서 주로 압박에 직면한다; 이들은 직업을 잃고, 구타를 당하고, 그리고 투옥을 당할 위험을 무릅쓴다. 따라서, 많은 기독교인 남성들이 나라에서 도망했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일/직업/사업에 의한 경제적 괴롭힘
- 가정으로부터 강제 내쫓김 - 추방
- 동네/국가에서 강제 추방
- 정부에 의한 투옥
- 군대/민병 징집/양심에 반하는 복무
- 폭력 – 신체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의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4	5	89
2023	3	89
2022	5	88
2021	7	87
2020	8	85

예멘의 점수는 89점에서 거의 바뀌지 않았다. 5개의 삶의 영역 모두에서 압박 점수는 전부 최고 점수 또는 그 가까이에 있다. 폭력은 동일한 정도인 5.9점에 머물렀다. 예멘에 있는 교회는 대부분 비밀리에 신앙을 살아내야 하는 무슬림 배경의 예멘인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들과 정부당국 (공식 당국 및 국가의 삼분의 일에서 지방 당국으로서 역할을 하는 후티 반군 둘 다)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에게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직면한다.

©Unsplash

보고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보안 상의 이유로, 세부 사항들은 이곳에서 발표될 수 없다.

개인영역

모든 예멘인들은 무슬림으로 간주된다. 기독교 개종자들은 가족 또는 지역사회에 의해 신앙이 발견되면 명예 살인 또는 신체적 폭력의 위험을 무릅쓴다. 극단적인 무슬림들에 의해 통제된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의 사적인 예배는 특히 위험 해졌다.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와 IS는 나라의 많은 부분을 통제한다.

가정영역

예멘 사회는 엄격히 무슬림이기에 가족의 명예에 수치스러운 모욕으로 여겨지는 개종에 대해 엄청난 가족 압박이 있다. 모든 기독교 의식과 기념 행사는 비밀리에 행해져야 한다. 자녀를 가진 무슬림 배경의 예멘 기독교인들은 자녀들을 반드시 이슬람 기준에 따라 키우도록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는다. 부모들의 새로운 신앙이 발견되면 양육권을 상실할 위험이 높다. 탐탁찮아 하는 가족들은 흔히 보수적인 무슬림 배우자와의 중매결혼으로 젊은 개종자를 '바로잡고자' 한다. 더 이상의 거절은 투옥, 가족 구성원에 의한 '명예' 살인, 또는 이슬람 무장 단체들에 의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동체영역

계속되는 갈등과 그 결과로 초래된 인도주의적 위기는 예멘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극도로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신앙이 발견된 새로운 개종자들은 종교를 바꾸도록 압박에 직면한다. 바꾸기를 거부하면 아무리 잘해도 투옥 또는 폭력을, 최악의 경우에는 살인에 처한다. 집단 압박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정들과 더 통합되고 사생활이 더 어려운 농촌마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신앙을 숨기는 기독교 개종자들은 모스크에 참석하지 않거나 (덜 자주) 참석하기 때문에 덜 헌신적인 무슬림으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식량과 원조 배부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밀린다.

국가영역

예멘의 형사법에 따르면,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배교 즉 사형죄이다. 고용에 있어서 경영자가 고용인을 기독교인으로 의심하면, 그는 사실상 승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멘의 많은 지역에서 법의 지배가 약한 것을 고려할 때 소위 '명예로운 범죄'라는 것을 포함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범죄의 가해자들은 불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널리 적용할 수 있는) 부족의 사법제도는 가정의 가장이 처벌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더 공식적인 체계에서는 이슬람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이들을 엄청나게 불리하게 할 것이다.

교회영역

국외 거주자 기독교인 또는 (대부분 에티오피아 사람들인) 난민을 섬기던 공식적인 기독교 건물 세 곳이(전부 예멘 남쪽 해안, 아덴에 위치함) 전쟁 중에 피해를 입었고 폐쇄되었다. 기독교인들은 오로지 비밀스러운 곳에서 만날 수 있다. 종교 자료를 배부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고 그에 따른 처벌은 극심하다. 인도주의적 노력을 조직하는 교회들은 공격의 위험을 무릅쓴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 위반

예멘은 다음 국제 조약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방지협약 (CAT)
4.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5.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

예멘은 다음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 개종자들은 개종을 철회하도록 국가와 사회로부터 압박을 받는다 (ICCPR 제18조)
-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이유로 편향된 긴급구호에 시달린다 (ICCPR 제26조)
- 기독교 개종자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개종으로 인해 이혼에 직면하고 자녀 양육권을 상실한다 (ICCPR 제23조, CEDAW 제16조)
- 비이슬람교 종교 자료를 나누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다 (ICCPR 제18, 19조)
- 여성 기독교 개종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이유로 강제 가택 연금을 당하고 인질로 잡힌다 (ICCPR 제9, 12조, CEDAW 제15조)

다른 소수 종교들의 상황

예멘에서 인권 침해를 겪는 다른 소수 종교는 바하이교와 유대교를 포함한다. 극단적인 무슬림들은 바하이교를 신앙심 없는 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차별을 당한다. 그들은 주로 후티 관계자들에 의해 투옥되고 고문당할 수 있다. 그들은 신앙을 버리도록 압박에 직면하기도 한다. 주로 수도에 기반을 둔 아주 작은 유대교 공동체는 후티 반군에 의해 적으로 간주된다. 후티는 수니파 이슬람교도들의 자유에도 제약을 부과한다.

오픈도어의 예멘 사역

오픈도어는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 및 훈련을 준비하며 예멘의 기독교인들을 돕는다. 또한 오픈도어는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배부한다. 오픈도어는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피난처와 보호를 제공하며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친척들에게 훈련과 생계수단을 제공한다.

북한선교현장

김서윤 전도사

이끄심: 시작은 어머니로부터(3)

안타깝게도 우리 가족의 풍요와 평안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어머니에게는 많은 형제가 있었는데, 그중 막내 외삼촌은 어머니가 업어 키우다시피 하셨다고 한다. 이사 후 오랫동안 다른 가족과 교류가 없었는데, 어머니와 남달리 우애가 좋으셨던 그 막내 외삼촌께서 수소문 끝에 우리 가족을 찾아오셨다. 두 분은 얼싸안고 기뻐하며 우셨다. 그동안 제대로 된 끼니조차 못했을 남동생을 위해 어머니는 한 상 부러지게 솜씨를 발휘하셨다. 그런데 식사가 끝난 후에 외삼촌은 한참을 뜸들이더니 어머니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가 출소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도 그 충격으로 쓰러져 큰집이 모시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외할머니 상태가 점점 더 악화하여 치매 증상이 나타나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셨다. 삼촌은 이 소식을 어머니에게 알리려 수없이 보낸 전보와 편지를 부치셨지만 어머니에게 닿지 못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다.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소식조차 모르고,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큰 죄책감에 빠지셨다. 외할아버지의 죽음을 차마 믿을 수 없으셨던 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소상히 말해 달라고 외삼촌에게 부탁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본래 늘 단정한 몸가짐을 유지하셨고 한겨울에도 냉수마찰을 하실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셨다. 그렇지만 고난의 행군이라는 어려움은 노인들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다가왔고, 연세 많은 두 노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자식들이 가져다주는 식량과 물품을 아껴써가며 삶을 연명하는 것뿐이었다. 그마저도 며느리들이 계속된 눈치 속에서 외할아버지는 늙은이가 짐짝이 되기 싫으시다고,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냐는 말씀을 외할머니께 자주 하셨다고 한다.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열심히, 남부끄럽지 않게, 올곧게 살아오셨기에 기나긴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추한 모습을 보이길 원치 않으셨던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거두셨다. 이 사건으로 외할머니께서도 큰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고 치매를 앓게 되셨다.

외삼촌이 찾아와서야 이런저런 소식을 듣게 된 어머니의 마음은 갈가리 찢어졌다. 무고한 심문과 고문, 수감생활을 딛고 이제는 당과 조국에 의지하지 않겠노라며 오직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성공을 위해 이제껏 달려왔건만 결국 부모조차 챙기지 못한 처지가 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백성들이 굶어 죽어도 나 몰라라 하는 이 나라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일어났다. 그렇게 남동생을 붙잡고 한참을 목 놓아 우셨다. 부모의 비통한 소식에 제정신이 아니셨던 어머니는 끼니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셨다. 어머니의 마음은 온통 어둠과 같은 슬픔으로 가득 채워졌다. 아마도 그런 슬픔 속에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여기는 당과 조국에 대한 원망이 무의식적으로 입 밖으로 나왔었는지,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로부터 당과 조국을 비방했다는 명목으로 고발을 당하여 보위부로 끌려가셨다.

어머니는 철저하게 혐의를 부인하셨다. 내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여기 온 것이냐, 나라에 충성한 죄밖에 없다고 잡아떼셨다. 그러자 심문관은 당과 수령을 비판했다는 내용이 적힌 밀고서를 들이밀었다. 그러고는 어머니의 팔과 다리를 묶어 놓고 24시간 재우지 않고 물고문을 자행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에 차 있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누군가가 거짓 증언을 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을 고문하느냐고 항변하며 그 말을 들은 사람을 내 앞으로 직접 데리고 와보라고 자신을 변호했다.

어머니가 잡혀가신 줄도 모르고 하교 후 집으로 돌아와 보니 보위부 위원이 아파트 입구에서 인민반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보위원이 내게 어머니가 갖고 있어야 할 집 열쇠를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한동안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니 맏이가 동생들을 잘 보살피라며 격려하고 떠났다.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듯이 말하는 그였지만 사실 그는 우리가 없는 사이에 어머니의 혐의점을 찾기 위해 이미 집을 한바탕 수색한 뒤였다. 이미 한 차례 어머니가 안 계셨던 경험이 있었기에, 어머니께서는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씩씩하게 동생들을 보살폈다.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살림을 잘했다는 칭찬을 받으려고 밥을 지을 때 입쌀보다는 강냉이 쌀을 더 많이 섞고 하루 한 끼는 국수를 먹으며 알뜰하게 살림을 지켰다. 그러다가도 한 밤 두 밤 지나갈 때마다 혹시나 어머니께서 돌아오시지 못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불안으로 가슴 졸였다.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토끼눈을 하고 나만 바라보는 동생들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어쩌면 지금의 불면증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

다행히 일주일 만에 어머니는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다. 아무래도 혐의의 입증이 어렵고 어머니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평소에 관계를 잘 만들어 놓으신 것이 도움이 되셨던 것 같다. 이른 아침에 집에 돌아오신 어머니의 얼굴은 온갖 멍으로 말할 수 없이 엉망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머니는 확고하게 깨달으셨다. 아무리 돈을 벌고 성공해도 자유가 없는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부모의 죽음 앞에서도 맘 놓고 울지도 못하는 나라, 인간에 대한 어떠한 존엄과 존중도 없는 나라, 인민들을 배불리 먹이지도 못하는 나라, 그래서 최악의 끝에 인육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 나라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확신하게 되셨다. 이러한 확신은 지난번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의혹으로 2년이 가까이 심문과 고문으로 고통 받았던 일과 함께 어머니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모조리 꺾어버렸다.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오늘부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하셨다. 그 중 첫 번째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집에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또 어딜 가더라도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는 꼭 집에 와야 한다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집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의심하지도 말고 밖에서 어른들이 어머니에 관해 묻거든 잘 모르겠다고만 하라고 우리들의 입을 주의시키셨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집에 있던 식기류들부터 시작하여 식기장, 옷장, 텔레비전까지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곧 다가오는 겨울 방학에는 우리들은 뵌 적 없는 친척 집으로 여행을 갈 것인데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나의 단짝 친구인 영희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 매번 방학이면 단짝 친구인 나와 영희는 방학 숙제도 함께 했었고, 일기와 두 달 치 방학 숙제를 그 누구보다 충실하게 끝내고 서로가 점검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렇게 여름방학에는 수영하러 다녔고, 산천어와 메뚜기 잡으러 다녔고, 이번 겨울에는 목도리랑 손 장갑을 뜨개질해서 만들어 서로에게 선물하기로 했고, 그 장갑을 끼고 눈썰매 타러 가기로 손가락 걸고 약속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다. 이미 방학 동안 알차게 보낼 시간표를 마쳤던 나는 참 속상했고 영희에게는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서 영희에게 혹여나 잠시 어디 다녀오더라도 섭섭해 하지 말고 며칠만 기다려 주면 꼭 영희가 갖고 싶어 했던 머리핀을 선물로 주기로 하고 친구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렇게 결전의 날이 밝았다. 달님도 깊이 잠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머니는 우리를 깨우셨다. 그리고는 아직 눈을 비비고 있는 우리에게 여려 겹으로 옷을 단단하게 입히셨다. 어머니께서 시키시는 대로 내복을 입는데 내복이 좀 무거웠다.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미리 나의 내복 옷깃에 자그마한 금덩어리들을 넣고 꿰매 놓으셨던 것이다. 어머니께서 어떤 의중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자세히는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상황의 엄중함과 중압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렇게 겹겹이 옷을 껴입은 우리 삼남매에게 어머니는 각자 책가방과 보자기로 묶인 짐을 챙겨주시고 집을 나섰다. 어머니의 준비성은 철저했다. 미리 준비하신 여행증과 통행증 등 많은 뇌물이 들어갔을 절차를 미리 완료해놓으셨다. 심지어 방학 기간에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여행학습을 하러 간다는 증명서까지 챙겨놓으셨다. 우리의 긴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계속)

한국오픈도어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 기도 자료

- 기독교 박해지도 및 50일 기도책자
- 어린이 기독교 박해지도 및 기도여권

2024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기독교 박해지도(A2), 어린이 기독교 박해지도(A3), 50일 기도책자, 기도여권이 제작되었습니다!

개인과 가정, 단체, 그리고 교회가 전세계 박해 받는 지역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료를 나눕니다.

모든 자료는 한국오픈도어에서 (홈페이지 / 카카오톡 채널 / 문자 / 전화)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QR코드

한국오픈도어
카카오톡채널 QR코드

자료 사용 방법

개인과 가정, 단체, 그리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기도자료들을 통해 풍성한 은혜와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50일 기도책자:

1. 50일 기도책자의 내용을 읽습니다. 한 명이 읽거나 함께 읽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큰 소리로 읽으면 좋습니다.

2. 기독교 박해지도를 가지고 계신다면 해당되는 국가의 위치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50일 기도책자 뒤쪽에 있는 기도 체크 리스트 확인표를 작성하세요.

3. 해당 국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찾으신다면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기독교 박해 - 월드 와치 리스트 - 맨 밑 '박해와 선교현장' 자료를 보시고 발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세요.

4. 기도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5.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여권:

1. 기도여권과 어린이 박해지도를 함께 준비해주세요. (인도자가 일반 기독교 박해지도를 참고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2. 기도여권에서 해당 국가에 대해 큰소리로 읽어 보세요.

3. 세계 박해 지도에서 국가를 찾으려면 국가의 모양이나 작은 기호를 찾아보세요.

4. 지도에 국가의 번호를 적으세요. (원한다면 색칠할 수도 있습니다.)

5. 기도여권을 사용하여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세요.

6. 지도의 빈칸에 방문한 날짜를 표시하세요.

7. 성경 암송구절을 암송한 후 확인을 받으세요.
그리고 성경 구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8. 기도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9.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여권을 사용할 때 희망의 저금통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 마다 이 저금통에 사랑의 헌금을 넣어주세요. 기도여권을 완주하고 나서 이 저금통에 담긴 헌금을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송금해주시면 전세계 박해 받는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50일 기도책자는 어른들이, 기도여권은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교회에서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사용해보세요.

50일 기도책자와 기도여권을 통해 전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한국오픈도어 지역설명회

전북 지역설명회를 마치며

2024년 2월 29일, 저희는 전북 익산에서 한국오픈도어 선교회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오래전에 오픈 도어를 아셨던 목사님, 외국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효과적으로 사역하는 선교회를 찾던 중 오픈도어를 발견하셨다며 김제에서 오신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감사했던 것은 익산에서 중심이 되는 기쁨의 교회에서 첫 걸음을 뗄 수 있어 기뻤습니다. 또한 오픈도어의 작은 사무실이 익산의 가장 중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전주와 군산 등 다른 도시에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호남지역은 역사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만큼 박해와 고난의 과정을 견뎌오며, 지금까지 그 자긍심으로 뭉쳐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호남지역에서 오픈도어의 사역을 알게 된다면, 그 어떤 지역보다 사명감을 갖고 박해 받는 국가와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사무실은 익산에 오셔서 기도의 제단을 쌓았던 한 독신 캐나다 선교사님의 기도 처소 이기도 합니다. 이 곳에서 박해 받는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호남지역의 교회들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이곳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지역 설명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1시간 안에 오픈도어 선교회의 사역 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속적인 모임과 관계를 통해서 오픈도어에 대한 정보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한국오픈도어 사역을 위한 기도를 요청 드리며 짧은 글을 맺겠습니다. 함께 기억해주시고 기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제목

1. 익산의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오픈도어의 작은 기도 처소에 대한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는데 허락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기도회, 그리고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오픈도어 미니 설명회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 호남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할 때 어린이 박해지도 활동에 대한 참여 열망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4. 익산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오픈도어 사역현장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호남의 교회들이 이제 국가를 넘어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교회들로 일어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황자경 선교사 올림-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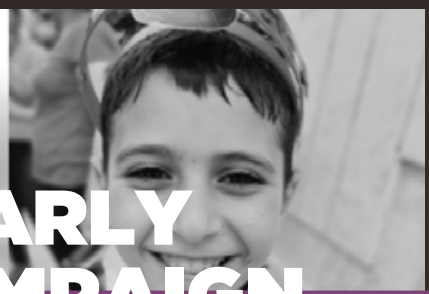
1.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 휴대폰 / 메일 / 카카오톡채널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4.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주소: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골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1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출금액	20,000원 기타:	출금일	○ 5일 ○ 25일
전화번호		출금동의 서명			
주소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Open 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2024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북한선교 이해와 통일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한 일꾼으로 준비될 기회인
북한선교학교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제	주차	날짜	강의 주제	강사
북한 선교를 위한 북한 이해	1	4/8	북한선교와 한국교회	하충엽 교수(숭실대)
	2	4/15	북한선교를 위한 북한의 사회와 문화 이해	최설 박사(심연북한연구소)
	3	4/22	북한선교를 위한 북한의 경제와 장마당 이해	양운철 박사(세종연구원)
	4	4/29	북한선교를 위한 북한의 정치와 주체사상 이해	정종기 교수(아신대)
	5	5/6	북한선교를 위한 북한 교회사 이해	유관지 목사(북한교회연구원)
	6	5/14(화요일)	DMZ 기도회	
북한 선교 현장 이해	7	5/20	북한 종교 박해의 실상	박한나 목사(북한수용소 경험 지하교회 성도 출신)
	8	5/27	국내 정착 탈북민선교 사역의 이해	류달주 목사 (사랑방교회)
	9	6/3	북한선교에 있어서 국제 협력 문제	정인수 목사 (전 CCC 국제 부총재)
	10	6/10	비즈니스를 통한 북한선교	이다니엘 박사 (IBA 사무총장)
	11	6/17	미디어를 통한 북한선교	성훈경 대표(TWR 북방선교방송)
	12	6/24	제삼국 북한선교 현장 이야기	현장사역자
	13	7/1	제삼국 북한 여성사역 현장 이야기	현장사역자
	14	7/8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루터기 신자, 수료식	현장사역자
	15	7월 중	제삼국 비젼트립	

시간 2024. 4. 8 ~ 7. 8 매주 월요일 저녁 7:15 ~ 9:15

장소 오픈도어선교회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01호, 상봉역 부근)
*현장강의를 기본으로 하며 지방거주자를 위한 비대면 강의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회비 15만원 (DMZ기도회, 비전트립 별도)
*신학생, 선교사, 목회자, 탈북민 그리고 이전에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를 수료하신 분의 경우 회비의 50%를 할인해 드립니다.

접수 2024. 2. 26 ~ 3. 29, 오픈도어 홈페이지(https://www.opendoors.or.kr/) – "이벤트 및 공지사항"메뉴를 통한 온라인 접수.

문의 한아론 선교사 (010-5107-8448)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